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10. 8(목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英, 코로나19 상황下 청소년의 테러 관심 증가 우려
  - 9.23 英 경찰 대테러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코로나19 봉쇄조치로 고립된 가운데, 온라인상에서 극우세력의 잘못된 정보나 혐오 발언 등을 접하면서 테러 공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
    - \* 테러범 중 청소년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,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우려
- 佛, 주간지 '샤를리 에브도\*' 舊사옥 인근 흉기 테러 발생
  - 9.25 AFP통신은 佛 사법당국이 파리 '샤를리 에브도誌' 舊사옥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(부상 2) 관련, 주범인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(18세)과 용의자 9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
    - \* '15.1.7 무함마드를 만평 소재로 삼았다가 총기 테러로 직원 12명 사망, '20.9.2 공범들의 재판 개시일에 맞춰 테러의 발단이 되었던 만평 再게재
- 佛,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방지를 위한 강력법안 추진
  - 10.2 프랑스 정부는 자국내에서 테러가 잇따라 발생하자 "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"며 급진화 교육 및 이슬람 분리주의 단속 법안을 12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발표

#### 미주

- 美, 이라크에 시아파 민병대 未억제시 대사관 폐쇄 경고
  - 9.27 美 정부는 이라크내에서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 기지 등에 로켓 공격을 지속할 경우, 바그다드 주재 美대사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이라크 정부에 경고

## ○ 美, 백인 우월주의 미국내 가장 큰 테러 위협 평가

- 9.23 「채드 울프」美 국토안보부(DHS) 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극단적 폭력성은 최근 수년간 미국이 직면한 '가장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위협'이 되고 있다고 평가
- \* 同人是 '19.11월부터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수행, '20.8월 장관 지명

## ○ 美, 극우(KKK) 및 극좌(Antifa) 단체 테러조직 지정 추진

- 9.25 「트럼프」美 대통령은 흑인유권자를 의식해 백인 우월주의 극우단체 KKK(Ku Klux Klan)와 반대세력인 극좌단체 Antifa(Anti-Fascist)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
- \* 「트럼프」는 '20.5월부터 Antifa를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, 금번 親흑인 정책의 일환으로 KKK도 함께 테러단체로 지정 추진

## 아 · 태평양

## ○ UN 사무총장, 아프간 자살폭탄 비난 성명 발표

- 10.5 「안토니우 구데흐스」UN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아프간 낭가하르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\*를 비난하고 아프간 정세 안정을 위한 UN 차원의 지원을 약속
- \* 10.3 아프간 낭가하르주에서 탈레반의 정부청사 자폭테러로 50여명이 사상

## 아프리카

## ○ 나이지리아, 보코하람 테러 위협으로 '적색경보' 발령

- 나이지리아는 가뭄과 홍수 등 기후 재앙과 코로나19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, '보코하람'이 근거지를 북부에서 남부로 옮기고 테러를 경고함에 따라 수도 아부자와 인근지역에 '적색경보' 발령

## ○ 소말리아, 테러단체 '알 샤바브' 대상 대테러작전 실시

- 9.26 소말리아 軍은 로워샤벨레주 바리에르 마을 외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'알 샤바브' 조직원 16명을 사살하고 납치된 어린이 40명을 구출했다고 발표
- \* 납치된 어린이들을 자살폭탄 테러에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

이스라엘, 북부 항구도시 식당 자살 폭탄테러

- '03.10.4. 14:15경 이스라엘 북부 항구도시 하이파의 한 해변가 식당에서 자살 폭탄테러로 19명 사망·55명 부상
  - 팔레스타인 여성 테러범 「하나디 자라다트」는 식당 입구에서 보안요원을 살해한 뒤 내부로 들어가 자폭
    - \* 同人은 요르단강 서안 출신으로 오빠가 이스라엘軍에 의해 사망하자 테러 감행
- 팔레스타인 급진 저항운동 단체 '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'가 사건 직후 同 테러의 배후를 자처
  - PIJ는 '이스라엘의 점령으로 매일같이 자행되는 일상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팔레스타인측의 당연한 응징'이라고 주장
- 이스라엘이 '무자비한 보복이 단행될 것'이라고 경고한 가운데, 팔레스타인 해방기구(PLO) 지도부도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'추악한 공격'이라고 비난하며 자폭테러를 강력히 규탄

<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 >

- (목표) 팔레스타인內 이스라엘 축출 및 이슬람국가 건설
- (이념) 아랍민족주의, 이슬람 원리주의
- (조직규모) 약 1,000명
- (주요인물) 지도자 : 「지야드 알 나칼라」 / 정신적 지도자 : 「압드 알 아지즈 아우다」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군 및 주민 대상 로켓 공격, 인질 납치
- (생성배경) '무슬림 형제단'內 팔레스타인 유학생 중심의 강경세력이 이란 혁명에 자극을 받아 '아랍권이 팔레스타인의 對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'에 불만을 품고 결성